

주한외국대사관의 날 성황리 개최

50여개국 110여명 주한외국 대사 외교관 참여

19일 각국 대사 및 국내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막을 올린 '2015 주한외국대사관의 날'이 21일 막을 내렸다.

이 행사는 국제문화기구인 월드마스터위원회(World Masters Committee)의 주최, 외교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다채로운 세계문화 및 국내문화 등의 부스 전시와 함께 다채로운 세계 및 국내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맛보게 한 공공외교의 장으로 평가됐다.

19일 열린 개막식에는 50여개국 110여 명의 각국 대사 및 외교관들과, 정세균 의원, 김종훈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정부관계자, 지자체장,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월드마스터위원회 김민찬 위원장이 환영사를, 모함메드 시라이비 주한 모로코 대사와 정세균 의원이, 김종훈 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주)파킹턴 박동선 회장에게 문화외교 공로상이 수여됐다.

김민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문화"는 정치, 종교, 민족,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마술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음을 그간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기구로서 문화와 예술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함메드 시라이비 주한 모로코 대사는 축사를 통해 "월드마스터 위원회의 굳은 신념과 주한외국대사관의 날 행사가 가까운 미래에 문화올림픽을 개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막되는 이러한 행사가 한국의 신명을 세계 속에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뿐만 아니라 인종과 세

대를 불문한 다양한 문화권에 계신 분들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틀 안에서 세계평화와 우정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라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외교의 본질은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외국대사관의 날' 행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개막식 식전 공연으로는 성악가 장은훈 씨의 공연, 축하공연으로는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세

상의 성공을 기원하는 헌공다례의식, 극단 예촌의 퓨전심청전과 목은정 대한명인의 한복패션쇼,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다.

한편 19일 오후 3시 경에는 한국홍보문화원(대표 목은정)의 발대식이 진행됐는데, 한국의 문화를 패션 퍼포먼스에 접목시켜, 화려하게 출범한 자리가 됐다.

둘째 날인 20일 오후 3시부터는 (사)대한명인회의 제 18차 대한민국 대한명인 추대식이 진행됐다. 이날 추대식에서는 황실연회, 궁중약선 등 36개 분야의 36명의 대한민국 대한명인이 새롭게 추대됐다. 이날 축사를 한 토마스 후삭 주한 체코공화국 대사는 축사를 통해 "각국 간의 문화 이해 증진에 헌신하고 있는 대한명인회에 감사를 전하며, 지난 십 년간의 고귀한 노력이 향후 성공적인 결실을 풍성하게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폐막식 행사가 열렸다. 폐막식 행사에는 30개국 60여 명의 주한외국대사 및 외교관을 비롯한 한류스타들이 참석했다. 폐막식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한외국대사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패 시상, 그리고 한류선정조직위원회의 '한국을 빛낸

인물(한빛상)' 시상식 등이 개최됐다.

한류선정조직위원회에서는 한국인의 위상, 자긍심 고취에 공헌한 방송인, 배우, 가수, 스포츠인,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빛상'을 수여했는데, 이번 시상식에서는 송해, 송강호, 이종석, 장혁, 빅스, 레인보우, 엔소녀, 에이핑크 등을 비롯, 한류 스타가 수상했다.

이날 축사를 한 크쉬슈토프 마이카 주한 폴란드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류에 기여한 시상자들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수상자들이 기여한 바는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한류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세계 문화 유산에 기여했다"라고 밝혔다.

'2015 주한외국대사관의 날'은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2013 순천정원박람회의 홍보대사였던, 서예계의 거장 고바야시 후요의 서예 퍼포먼스, 소프라노 허은영의 공연,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의 젊은 댄스그룹의 공연과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들의 발랄한 댄스 공연 등과 대한명인들의 전통공연, 동동구르무와 마술, 국악재즈, 발리엔트의 댄스공연, 태권도 '놀자' 팀의 태권도 공연 등과 트란다 등의 전통무용이 서로 어우러진 다채로

운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각국의 전시 부스에서는 각 나라의 고유한 작품과 장신구, 음식과 음료 등을 알리며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2015주한외국대사관의 날' 행사에서는 대사관 부스 이외에도 대한명인들의 전시와 체험 부스, 지자체, 문화단체 등의 홍보부스가 마련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행사 기간 3일 동안 많은 취재진이 몰려,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세계문화의 장을 카메라렌즈에 담는 데 여념이 없었다.

강남혁 기자

직장인, 워너비 몸매 1위 '소지섭, 김사랑'

10명 중 9명 다이어트 필요성 느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고, 가장 몸매가 좋은 연예인으로는 배우 '소지섭'과 '김사랑'을 각각 1위로 꼽았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2,689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다이어트 계획'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드러난 결과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본인에게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그러자 전체 응답자 94.0%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직장인은 6.0%에 그쳤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날씬하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라는 답변이 4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27.2%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적정한 체중을 만들기 위

해서(16.1%)',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8.5%)' 등의 순이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는 순간(복수응답)으로는 '웃이 맞지 않을 때'가 응답률 50.2%로 가장 높았고, '살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24.1%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거울을 볼 때마다(23.9%)',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18.0%)', '노출의 계절이 다가올 때(15.6%)', '몸매 좋은 사람을 봤을 때(15.5%)', '매일(12.1%)' 다이어트를 결심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얼마나 될까. 관련 질문을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1.2%가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직장인들이 선택한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헬스, 요가 등

의 운동'이 43.0%로 가장 높았고, '소식하기'가 25.3%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6시 이후 금식(9.4%) ▲다이어트 보조제 섭취(9.4%) ▲1일 1식(8.1%) ▲다이어트 센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1.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직장인들은 가장 몸매가 좋은 스타로 '소지섭'과 '김사랑'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가장 몸매가 좋은 연예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남자 연예인은 소지섭(8.9%)이, 여자 연예인은 김사랑(15.8%)이 각각 1위로 꼽혔다. 이어 남자연예인은 2위 차승원(8.6%), 3위 공유(8.3%), 4위 비(6.8%), 5위 권상우(6.8%) 순으로 조사됐다. 여자연예인의 경우 2위 전지현(8.0%) 3위 이하늬(6.0%) 4위 소유(4.0%) 5위 예정화(3.7%) 순으로 나타났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비즈니스북스, 100만 독자가 극찬한 인간관계 바이블 출간

'사람 부자'라는 누군가의 말에 팬스레 부러운 마음이 들고, 현대화 속 전화번호 개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에 의기소침했던 적이 있는가?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맥은 넓을수록 좋다는 말에 무작정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 관계를 맺어보려 했던 경험이 있는가? 현대의 대다수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넓이와 성공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맥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다. 바로 '인생에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의 저자 리웨이원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홍보 및 인간관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덕체니 전 미국 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 홍보 고문으로 활동한 리웨이원은 그의 신간, '인생에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를 통해 인생의 성장과 성공에 너무 많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또한 막연한 인맥 넓히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일곱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족 이외에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적 관계부터 성인이 된 후 만나는 멘토, 직장에 들어가 함께 일하는 동료와 상사, 오랫동안 함께할 평생지기, 그리고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까지 인생의 각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곱 가지의 역할을 꼼꼼하게 짚어 주고 각 역할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지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곱 사람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Ha Long Bay

전설을 믿어본 적 있다
때론 유유자적 신산봉에 빠지고 싶다
새월만큼 훌륭한 예술가는 없다

시간과 자연 앞에
겸손할 줄 아는 당신은

M3

당신에게 용이 물고 내려온 수천 개의
구슬과 보물을 추천합니다
[용의 보석 허름베이]

누구나
전미다의
여행이 있다

베트남



찾아보세요 당신만의 여행을

travel.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호퍼인, 허노이, 다낭, 나트랑 /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추진

공연경비 및 참여공연 출연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원로예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연 단단을 구성하는 경우에 공연 경비를 지원하거나, 기존 공연단체가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진행할 경우 원로예술인의 출연료

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원로예술인 공연단의 경우 6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연 장르와 규모 등을 감안해 조정·지원하며, 출연료의 경우 통상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장르와 역할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음악, 무용, 연극, 악극, 창극 등이며, 장르 간 융합

공연도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6월 24일(수)부터 7월 28일(화)까지이며,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기관, 시설이면 지원할 수 있다.(단, 국공립 기관 등, 민간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

응모 마감 후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연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주관단체의 실행 능력, 사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8월 중에 최종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창근 기자